

엘비투스, 두경부암 치료 병행사용 승인

한국Merck는 엘비투스가 국소진행형 두경부암에서 방사선 치료와 병용해 사용할 수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엘비투스는 두경부암의 최초의 표적치료제로서 2006년 3월과 4월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 당국(EMEA: European Medicines Agency)으로부터 국소진행형 두경부암에 방사선치료와 병용해 사용하는 것을 승인 받았다.

허가는 2006년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발표된 Bonner 등이 한 연구를 바탕으로 했으며, 임상연구 결과 엘비투스는 방사선 단독요법에 비해 20개월의 생존기간과 10개월의 국소조절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증가하지 않으며 삶의 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비투스는 전이성 대장암의 2차 및 3차 요법으로 유럽 및 미국에서 2005년 2월과 6월에 각각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2005년 6월 국내에서 식약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다.

현재 전세계 72개국에서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 대해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두경부암은 66개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두경부암은 국내에서 7번째로 많은 암으로 매년 25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8/07/17>